

3.1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긴다.

103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은 일제(日帝)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며 한반도 전역에서 분연히 일어났다. 민족자존을 향한 그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6년이 더 지난 1945년 8월 15일에야 비로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약소국이 겪는 비애는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아침, 이슬람 반군에 의한 아프카니스탄 함락에 이어 며칠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했다.

이러한 비극적 사태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교훈은, 오로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력만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한반은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본질을 호도하면서 힘이 없어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불행한 삶조차 동맹국, 우방국과의 반목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시대착오적인 세력들의 행태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의 선조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염원하며 영은문을 허물고 1897년에 세운 독립문 앞에 선 우리 한반은, 인류의 진정한 인권과 자유를 갈망하는 전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

또한 북한 동포의 인권개선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 한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 의회와 UN에 보낸 反대한민국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장관에게 5년째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과 임명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 3.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이재원